

기억 이미지로서의 중국문자

- 마테오 리치의 『서국기법』(西國記法)* -

김 남 시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서국기법』은 여러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이다. 이 책은 당대 서구 지식인들의 지식 활동 방법론이었던 기억술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한자와 한자 텍스트를 기억하는 데 적용하려던 시도의 산물이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서구 기억술이 근거하던 지식의 시각화 원리가 그와는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중국문자에 적용될 때 생겨나는 편차와 간극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16세기 유럽 지식인이 자신에게는 완전히 낯설었던 중국의 언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18).

주제어: 마테오 리치, 『서국기법』, 기억술, 서구인들의 한자이해
Matteo Ricci, *Xiguojifa*, the art of memory, western 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

어와 문자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에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는 『서국기법』의 체계와 내용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서양 기억술과 중국 문자가 만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서양 기억술의 기본 원리와 역사를 개괄한 후, 구체적으로 마테오 리치가 그를 한자와 한자 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서양 기억술의 구조와 원리

기억술(Ars Memoriae)은 수사학적 전통에서 이미 서양 고대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지식의 역사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구조 패러다임의 변화¹⁾와 더불어 쇠퇴해가기 전까지 기억술은 연설과 논쟁, 설교 등으로 이루어지던 지식 전승에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다.²⁾ 서양 기억술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고대의 저작은 저자 불명의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

1) 이에 대해서는 Wolf Lepenies(1976), *Das Ende der Naturgeschichte. Wandel kultureller Selbstverständlichkeit in den Wissenschaften des 18. und 19. Jahrhundert*, München, p. 9 이하.

2) 17세기까지 출간된 기억술 관련 저작 중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큰 영향을 끼친 것만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Jacobus Publicius(1482), *Oratoriae artis epitome*, Peterus Ravennatus(1491), *Phoenix, sive artificiosa memoria*, Johannes Romberch(1520), *Congestorium artificiosae memoriae*, Cosmas Rosselius(1579), *Thesaurus artificiosae memoriae*, Frances A. Yates(2001), *The Art of Memory*, Mary Carruthers(2008), *The Book of Memory* 참조. 17세기에 들어서도 적지않은 기억술 저작들이 출간되었는데, 당대 인기있던 기억술 저술가 Johannes Buno는 라틴어 문법, 법조문, 역사나 성경을 암기하는 실용적 기억술을 제시한다. Buno에 대해서는 Gerhard F. Strasser(2004), *Die Verbindung von Mnemotechnik und Emblematik in didaktischer Literatur des 17. Jahrhunderts*, in *Die Domäne des Emblems*, hg. von Gerhard F. Strasser & Mara R. Walde, Wiesbaden, pp. 211-232.

(*Rhetorica ad Herennium*),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De Oratore*), 퀸틸리아 누스의 「수사학 교육」(*Institutio oratoria*)이다. 이 중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남아있는 문헌 중 고대 기억술에 대해 비교적 온전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헤레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³⁾이다. 기원전 86-82년 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수사학에 대한 문헌이다. 수사학에서 기억술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기억이 수사학의 다섯가지 구성요소 - 창안(*inventio*), 정돈(*dispositio*), 양식(*elocutio*), 기억(*memoria*), 실행(*pronuntiatio/actio*) -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억술의 창시자로 거론되는 시모니데스⁴⁾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시인으로 잔치에 초청받았던 그가 손님으로 가득 찬 연회장을 잠시 빠져나온 사이 갑자기 불어온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깔려 죽게 되었다. 시신이 어지럽게 섞여있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해 낼 수 없던 차에, 시모니데스는 연회장을 떠나기 전 사람들이 앉아있던 순서를 기억해내어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기억법을 터득해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기억술이 공간적 질서와 배열의 원리에서 출발하였음을 알려준다. 기억술은 기억할 대상을 상응하는 시각적 이미지(*Imago*)로 변환시킨 후, 그를 미리 구축해 놓은 상상적 공간(*Locus*)의 질서에 따라 배치시켜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술에서는 기억 대상의 이미지화와 그를 배치할 기억의 장소라는 두 요소가 핵심을 이룬다.

3) 이하 『헤레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에 대한 논의는 Frances A. Yates(2001), *The Art of Memory*,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와 Cicero(1954), *Rhetorica Ad Herennium*, trans. Harry Caplan, Harvard University Press를 참조하였다.

4) 이후 기억술 전통에서 기억술의 창시자는 시모니데스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Frances A. Yates(2001), p. 115.

2.1. 기억장소 (Locus)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의 저자는 기억술의 두 요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후대의 기억술 저작들에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기억의 장소는 분명한 순서와 질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너무 어두워서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서도 안 된다. 그 장소가 사람들로 북적대거나,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다면 그곳에 배치된 기억 이미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장소는 자신에게 익숙해 있는 실제 장소를 모델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상상을 통해 구축할 수도 있다. 장소의 수는 다수의 기억 이미지를 포괄할 만큼 충분해야 하고, 각 장소들이 서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그를 떠올릴 때 혼동되지 않을 것이다. 장소의 크기 역시 적절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크면 기억 이미지들이 흐릿해질 것이고, 너무 작으면 큰 이미지를 수납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장소들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매 다섯 번째나 열 번째 장소에 손이나 십자가 모양의 표지(Nota)를 배치하기도 한다.⁵⁾ 기억 이미지들은 추가되거나 바뀌지만 한 번 구축된 기억 장소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기에 주의 깊게 지어져야 하며, 오랜 연습과 훈련을 통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2.2. 기억 이미지(Imago)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기억 장소의 공간적 질서에 배치할 기억 대상을 이미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 기억 이미지가 갖추어야 할 첫번째 조건은, 당연히게도 이 이미지가 기억 대상을 떠올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5) Mary Carruthers(2008), *The Book of Memory: A Study of Memory in Medieval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90.

다. 그를 위해 기억 이미지는 기억 대상과 일정한 상응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억술 저작들은 그 관계를 “유사성”(similitude)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한다. 즉, 기억 이미지는 기억 대상과 같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은 아래에서 밝혀질 것이다.) 기억해야 할 대상의 성격과 기억의 목적에 따라 이미지화에는 서로 다른 방법이 사용된다. 기억술 전통에서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사물의 기억(memoria rerum)과 말의 기억(memoria verborum)으로 구분되어 왔다. 사물의 기억(memoria rerum)이란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사물 res”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res’는 구체적인 사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연설가에게 그것은 연설이 담아야 할 소재들이며,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테마와 관련된 요소들,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논증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와 구별되는 말의 기억(memoria verborum)은 유명 시구나 구절, 주요한 저자의 인용문 등을 글자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2.2.1. 사물의 기억(memoria rerum)

『헤레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에 등장하는 사물의 기억에 대한 사례는 한 법정사건이다. 변호인은 유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누군가를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를 변론해야 한다. 검사는 피고가 독살했음을 증명할 증인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정 논쟁에 참여하여 피고를 변론해야 하는 변호인은 이 사건의 개요는 물론 관련된 모든 논거들, 곧 “res”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장면으로 이미지화된다.

“병든 남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가 그 침대 옆에 서 있다. 그는 오른손에는 잔을, 왼손에는 명판을 잡고 있으며,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숫

양의 고환(testiculos arientinos)이 들려있다.”⁶⁾

위 이미지에서 피고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잔은 그가 독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왼손에 들고 있는 명판은 이 사건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기억 이미지이며, 네 번째 손가락⁷⁾에 들고 있는 숫양의 고환(testiculi)는 라틴어 단어 “증인”(testes)과의 음성적 유사성을 통해, 그의 독살혐의에 많은 증인이 연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줄 기억 이미지이다. 법정 변론을 위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요소들을 한 장면으로 결합시킨 이 이미지를 통해 변호인은 사건의 개요와 정황을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례로부터 우리는 기억술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억술에서 기억 대상의 기억 이미지는 매우 다양한 의미론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잔=독살’, ‘명판=상속재산’, ‘숫양의 고환=증인’에서 보듯 기억해야 할 대상과 그 대상의 기억 이미지 사이의 관계는 대상과의 형태적 유사성(corporeal similitude)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 관계를 특징지우는 ‘유사성’(Similitude)이라는 개념은 상징, 은유, 환유, 연상, 동의어, 나아가 동음어와 같은 음성적 유사성까지를 포괄⁸⁾한다. 둘째, 널리 퍼져있는 견해와는 달리 기억술은 단순한 기계적 암송이 아니라, 연설이나 학문적 논쟁, 변론 등을 위한 실천적 기술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포괄적인 유사성 관계로 맺어져 있는 기억

6) Frances A. Yates(2001), *Ibid*, p. 27, Ad Herennium, Book III, XX.

7) 이것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신경이 직접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 신경이 다른 손가락으로 뻗어간다고 믿었던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Cicero(1954), *Rhetorica Ad Herennium*, trans. Harry Caplan, Harvard University Press, p. 214 각주.

8) 이러한 점에서 움베르트 에코는 기억술에서 기억 이미지와 기억 대상을 관계 맺게 하는 기호론적 체계의 성격을 ‘백과사전적’이라고 특징지운다. U. Eco(1998), “An Ars Oblivionalis? Forget It!” *PMLA* May, Vol. 103.

이미지를 통해 1차적으로 상기되는 것은 개별 대상들 - 독살, 상속재산, 증인 등 - 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상기의 목표는 그들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사건 전체의 개요와 정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기억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사전에 이미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억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기억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보편적 기호가 아니라, 이미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대상을 상기시켜 주는 인지적 단서에 다름 아니다. 기억술은 그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공부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취급하는 대상 영역에 대해 이미 상당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론⁹⁾인 것이다.

2.2.2. 말의 기억(memoria verborum)

사물의 기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변론, 연설, 논쟁 등에서 특정 사안을 둘러싼 정황들을 상기하는 것이었다면, 말의 기억(memoria verborum)은 중요한 시구나 전범이 되는 텍스트 구절 등을 글자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고대 시인이나 작가들의 유명한 구절, 성서, 그 중에서도 시편 구절 등을 그대로 외워 인용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학문적 풍토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었다. 하지만 기억술을 통해 문장이나 구절을 글자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재능을 더 많이 연마해야”¹⁰⁾ 하기에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의 저자는 이 방법은 주로 사물의 기억을 연습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¹¹⁾한

9) Mary Carruthers는 기억술이 단지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재생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를 활용하는 사람의 사유 활동과 결합, 새로운 창안 invention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Mary Carruthers(1998), *The Craft of Thought. Meditation, Rhetoric and the Making of Images*, 400-12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6 이하.

10) “Plus negotii suscipiemus et magis ingenium nostrum exercebimus”, Ad Herennium, Book III, p. XXI.

다.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에서 들고 있는 말의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의 문장을 기억하는 것이다.

Iam domum itionem reges Atriadae parant.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왕들,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 준비하고 있다.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의 저자는 이 문장을 기억하기 위한 두 개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도미티우스(Domitius)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린 채 마르키우스 집안의 렉스(Rex)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Domitius”와 “Rex”¹²⁾는 음성적 유사성을 통해 각기 “domum”과 “reges”를 상기시켜 주는 기억 단서들로,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이로부터 “Iam domum itionem reges”라는 문장 전체를 떠올리게 된다. 두번째 이미지는 아이소푸스(Aesopus)와 킴베르(Cimber)¹³⁾가 비극 『이피게네이아』에 등장하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로 분장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는 아트레우스 왕의 아들들이기에 이 장면은 “Atridae parant” 곧,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기 위한 기억 이미지가 된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이 기억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물론, 렉스, 도미티우스, 아에소포스, 킴베르 라는 당대 또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11) Mary Carruthers(2008), *The Book of Memory. A Study of Memory in Medieval Culture*, p. 91. Ad Herennium, Book III, p. XXIII.

12) 렉스 Rex는 마르키우스 씨족 중 가장 뛰어난 가문의 이름이며, 도미티우스 Domitius 역시 당대 유명한 씨족이다. Cicero(1954), *Rhetorica Ad Herennium*, trans. Harry Caplan, Harvard University Press, p. 217 각주.

13) 아에소포스 Aesopus는 키케로의 친구이자 유명한 비극 배우의 이름이며, 킴베르는 Ad Herennium 의 저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Cicero(1954), *Rhetorica Ad Herennium*, trans. Harry Caplan, Harvard University Press, p. 217 각주 참조.

것이다. 기억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억술 활용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광범위하게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억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2.2.3. 행동의 연상 이미지(Imagines agentes)

위 사례들에서 매를 맞거나 분장을 하는 등 기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기억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이미지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소하고,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정신이 기이하지 않고 놀랍지 않은 것에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주 비열하고, 치욕스럽고, 놀랍고, 믿기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 이것은 익숙한 것들은 기억에서 쉽게 미끄러지는 데 반해 충격적이고 기이한 것들은 정신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저자는 인지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가공할 것을 권하는데, “이미지를 빼어나게 아름답게 하거나 정반대로 아주 추하게 만들고”, 이미지에 “왕관을 씌우거나, 망토를 입히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진흙을 바르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효과적인 기억을 위한 상상적 가공을 통해 생겨나는 기억 이미지를 기억술에서는 “동적이미지”(Imagines agentes)라 칭하는데, 이 원리는 기억술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었다.¹⁵⁾

14) Ad Herennium, Book III, XXII.

15) 예이츠에 따르면 지오토나 단테에 의해 묘사된 악덕과 미덕, 지옥과 천국의 모습에 등장하는 기괴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들은 병리적 심리의 소산물이 아니라, 사람들

2.3. 중세 기억술: 기억술의 신학적 정당화

『서국기법』은 마테오 리치가 이러한 서구 기억술의 기본 원리와 이론들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활용에도 매우 능숙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맞서 카톨릭 보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되고, 또 그만큼 교단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한 예수회¹⁶⁾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어떻게 이교적 전통에서 출발한 기억술에 그토록 박식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기억술은 성상금지로 대변되는 기독교 문화의 반이미지주의에 대립되는 감각적, 이미지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중세를 거쳐 마테오 리치가 살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기억술의 역사를 추적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수사학적 전통에서 생겨난 기억의 기술은, 중세를 거치면서 차츰 그 성격과 적용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억이 인간이 갖추어야 하며 또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덕목으로 인정됨으로써 기억술에도 윤리적 실천방법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레겐스부르크의 주교였던 대(大)알베르투스(Albertus Magnus, 1193~1280)와 그와 더불어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켰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이다. 알베르투스는 기억(memory)과 상기(remembrance)를 구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¹⁷⁾를 받아들여 기억은 감각에 의해 생겨나지만, 상기는 영혼의 합리적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논증한다. 나아가 우리는 현재나 미래의 행위를 올

의 기억에 오래 남아야 할 이미지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세시대가 기억술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Frances A. Yates(2001), *Ibid.*, p. 104 이하.

16) 히라카와 스케히로(노영희 역),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55, 60쪽 참조.

17) 이에 대해서는 조대호(2012), 「기억과 상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억과 상기에 대하여」 2장에 대한 분석」, 『철학연구』 96호, 5-38쪽.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과거의 감각이나 지식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억은 사려 Prudence의 덕목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기억술이 현재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의 사물과 사건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억술은 그 윤리적 덕목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수용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모든 지식이 감각에서 출발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입장에서 “감각(sensibilia)을 통해 지성(intelligibilia)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¹⁹⁾ 것임을 인정하였다. 심지어 아퀴나스는 기억에 오래 남기위한 이미지의 조건으로 ‘기괴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제작하는 *imagines agentes*의 원리를 긍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억을 위해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억술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았다.

중세시대 큰 권위를 가지던 교부 철학자들의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억술은 큰 문제없이 기독교 문화에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억술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통해 구원과 저주, 천국에 가기위해 요구되는 선행과 지옥에 빠지게 될 악행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존 드 리드발(John de Ridevall)은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눈이 멀고, 귀가 잘려나가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온갖 병에 걸린 창녀”의 모습을 기억 이미지로 활용한다. 계시록의 거대 음녀(淫女)를 연상시키는 창녀가 장님이자 귀머거리인 것은 우상이 참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떠올리기 위한 것이며,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은 우상숭배의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슬픔이라는

18) Frances A. Yates(2001), *Ibid*, p. 74. Albertus Magnus(2002), “Commentary on Aristotel, On Memory and Recollection”, in Marry Carruthers & Jan M. Ziolkowski(2002), *The Medieval Craft of Memory.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hiladelphia, p. 118.

19) Summa theologiae I, 1. quaestio I, articulus 9, Frances A. Yates(2001), *Ibid*, p. 89에서 재인용.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며, 온갖 병은 이상숭배가 규제되지 않은 사랑의 하나임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이미지²⁰⁾인 것이다.

마테오 리치로 하여금 기억술에 익숙하게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그가 속했던 예수회 교단의 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회는 교육과 학습에 있어 기억훈련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1599년 출간된 예수회 교단의 공식 교육지침서 『대학편람』(*Ratio atque Institutio Studiorum Societatis Iesu*, 통상 *Ratio Studiorum*)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법, 수사학, 철학, 신학 등의 과목에는 필수적으로 기억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매일 오전 키케로의 연설문이나, 베르길리우스나 호레이스, 오비디우스 등 고전 작가들의 글을 암송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인류 전체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예수회 교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억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²¹⁾ 것이다. 중세 기억술 저술들을 연구한 헬가 하즈두(Helga Hajdu)는 16세기에서 17세기 초 기억술 저작물이 갑작스럽게 다시 번성하게 된 사실에 주목하는 데, 이는 당시 새로운 종교적 질서를 주도하던 프로테스탄트와 예수회가 모두 기억훈련을 중시하는 학습법을 내세웠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²²⁾ 이러한 배경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예수회 수사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위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기억술을 적극 활용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 역시 그에 예외일리 없다. 리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 습득된 기억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서국기법』에서 펼쳐 보여준다.

20) Frances A. Yates(2001), *Ibid*, p. 105.

21) Robert Schwickerath S. J.(1903), *Jesuit Education. Its History and Principles Viewed in the Light of Modern Educational Problems*(Saint Louis, Missouri 1903), Chapter XVI, “The Method of Teaching in Practice”, § 2. Memory Lessons 참조.

원문은 <http://www.slu.edu/colleges/AS/languages/classical/latin/tchmat/pedagogy/schw/schw3.html#45>에서 읽을 수 있다.

22) Helga Hajdu(1967), *Das mnemotechnische Schrifttum des Mittelalters*, Amsterdam, p. 122.

3. 중국 문자에 적용된 서양 기억술: 『서국기법』

『서국기법』은 “원본”(原本), “명용”(明用), “설위”(設位), “입상”(立像), “정식”(定識), “광자”(廣資)라는 총 여섯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원본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억에 대한 이론에 입각²³⁾하여 기억과 감각지각의 관계, 사람에 따른 기억력의 차이, 다양한 기억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명용편에서부터 그가 “상기법”(象記法)이라 칭한 서구 기억술의 기본원리가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리치에 따르면 상기법이란 “사물 또는 사태의 형상을 각각의 장소에 차례대로 배치”하고, 그를 떠올리려면 먼저 “그 방(장소)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곳에 배치해 놓은 “형상으로 인하여” 기억 대상을 상기하는 것이다. 설위편에서는 기억장소(Locus)의 종류와 조건들

23) 리치의 아래 문장은 아리스토텔레스 *De memoria et reminiscentia* 450b 부분의 논의와 거의 일치한다. “사람의 기억력(記念)은 어려움과 쉬움, 많음과 적음, 오래됨과 잠깐의 차이가 있다. 무엇 때문인가? 대체로 모든 기억은 반드시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사체(四體)로부터 들어온다. 그것이 들어올 때에 물건(物)은 반드시 물건이 형상(物之象)이 있고, 사건(事)은 반드시 사건의 형상(事之象)이 있어서 고르게 도장을 찍듯이 뇌에 각인된다. 그 뇌의 유연한 정도가 마땅하고, 풍요롭고 넉넉함이 완비되어 있으면, 받아들여 각인된 것이 깊고 분명하며 저장된 형상도 많고 오래간다. 그 뇌가 그와 반대라면 그 기억 또한 그와 반대다. 예를 들어 유아는 그 뇌가 대단히 부드러워서 물과 같다고 비유될 수 있으니, 그곳에 새겨도 흔적이 없으므로 기억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조금 자란 아동은 그 뇌가 조금 단단해져서 진흙과 같다고 비유될 수 있는데, 그곳에 새기면 비록 흔적은 남지만 영원히 남아있게 할 수는 없으므로 기억하기도 쉽고 잊기도 쉽다. 완전한 성년이 되면 그 뇌가 딱딱하게 되어 딱딱하지도 부드러우지도 않으니, 비유하자면 면이나 비단의 옷감과 같다. 그곳에 새기기가 쉽고 흔적 또한 완벽하게 갖추어지므로 기억하기 쉽고 잊기가 어렵다. 노년이 되면 그 뇌가 마르고 굳어서 너무 딱딱해지는데 비유하자면 쇠나 돌과 같다. 그곳에 새기려 해도 들어가게 하기 어렵고 새겨 넣어도 깊지 않다. 그러므로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니 곧 억지로 기억해도 잊기가 쉽다. 혹은 청장년이 기억하기 어려우니, 그것은 마치 돌과 쇠에 새기려면 새겨 넣기는 어려우나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아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잊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도 (말한다) 노년에 이르러 잊는 것이 쉬워서 마치 벽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색깔이 오래되어서 점차 탈색하고 완전하게 복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을, 입상편에서는 『서국기법』에서 1차적 기억대상인 한자로 기억 이미지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한다. 정식편은 그 방법에 의거하여 유명 구절이나 일화들을 기억하는 *memoria rerum*과 경전이나 시구의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기 위한 *memoria verborum*의 사례를 설명하고, 마지막 광자편은 수많은 한자어들의 기억 이미지화 방법에 할애하고 있다. 『서국기법』에서 드러나는 서양 기억술과 한자의 접점에 관심을 갖는 우리는 이 중 설위, 입상, 정식 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기억의 장소

기억 장소에 대한 리치의 설명은 기억술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다. 리치는 기억 장소를 그 성격에 따라 ‘실제(實) 장소’와 ‘허구로 구성한(虛) 장소’로 구분하고, ‘몸소 친히 익혀’ 익숙한 실제의 장소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에서 생각하여 가설’한 ‘반은 실제이고 반은 허구인 장소’(半實半虛)를 기억술의 이상적인 장소로 여긴다.

“장소(處所)에는 또한 실제적인 것(實)이 있고 상상적인 것(虛)이 있고, 반은 실제적이고 반은 상상적인 것(半實半虛)이 있어 세 등급으로 나뉜다. 실제적인 것은 몸소 친히 익혀 본 것(親習)이고 상상적인 것은 마음에서 생각하여 가설(假設)한 것이다 … 반은 실제적이고 반은 상상적인 것은 서로 나란히 놓되 떨어지게 하여, (그 사이에) 문을 지나는 길을 가설로 열어 두어서 오가는 데 통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옥이 등 높이를 넘으면 사다리를 (가설로) 설치하여 올라가기 편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 당현이 너무 넓으면 반드시 상자나 걸상을 (가설로) 안배하여 교묘하게 구분하고 막아주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예를 든) 장소로서 누옥과 당현은 모두 실제적인 것이고, 문을 열어두기, 사다리 설치하기, 상자를 안배하기 등의 항목은 모두 마음속에서 가설한 것이다. 대체로 실제로 있는 것은 (장소로 두기) 쉽지만, 가짜로 만든 것은 (장소로 설정하기) 어렵다. 가설은 공부(功夫)가 숙련되지 않으면 대체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그 묘미는 반드시 가설에 있다. (그것에) 흥미를 두고 마음에 맞게 되면 반은 실제적

이고 받은 상상적인 것은 더더욱 오묘한 것이 되어간다.”²⁴⁾



<그림 1> Romberch, *Congestorium artificiose memoriae* 1533

리치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기억 장소는 한적하고 고요해야 하고,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어둡지 않고 밝으며,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등의 13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역시 서양 기억술 저작들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기억 장소의 적절한 크기로 한 사람이 양 팔을 뻗은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대목²⁵⁾은 예를 들어 독일 출생의 도미니크 수도사 요한 호스트 폰 롬베르흐(Johann Host von Romberch, 1480~1533)가 저술한 기억술 저작 *Congestorium Artificiose*

24) 『서국기법』, 제3편 설위편. 서국기법은 염정삼 선생님의 초역에 근거, 독일어 역 - Michael Lackner, *Das vergessene Gedächtnis. Die jesuistische mnemotechnische Abhandlung XIGUO JIFA. Übersetzung und Kommentar.* Stuttgart 1986 - 을 참조, 수정하였다.

25) “장소는 넓게 펼쳐져야 한다. 그래야 큰 형상을 배치(安置)하는 데에 편리하다. 만약 비좁고 막혀 있다면 형상이 큰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무 넓어서도 적당하지 않다. 너무 넓으면 형상이 쉽게 빠져 달아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장소에 배치하는 데 높이는 세로로 발돋움하여 곧추 세운 정도이며 둘레는 가로로 양 팔을 펼친 정도여야 하니, 반드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나머지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국기법』, 제3편 설위편.

Memoriae(1533)에 도판과 함께 등장하는 내용²⁶⁾이다.

3.2. 기억 이미지: 개별 한자의 경우

리치의 『서국기법』을 그 이전은 물론 이후의 다른 기억술 저작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책에서 기억술이 한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²⁷⁾이다. 마테오 리치는 입상편 첫머리에서 육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²⁸⁾ 그가 이해하고 있는 육서의 원리와 한자의 이미지화를 적극적으로 서로 관련시키려고 한다. 육서와 해당 한자들의 기억 이미지화를 관련시키는 리치의 논의²⁹⁾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6) Frances A. Yates(2001), *Ibid*, p. 124.

27) 마테오 리치는 서양 기억술의 원리와 한자 사이에 어떤 구조적 상동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듯 하다. 이는 지인에게 보낸 다음 편지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이 기억궁전 체계는 마치 중국문자를 위해 발명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네. 각각의 글자가 하나의 사물을 의미하는 형상이기에 중국문자는 특히 이를 위해 유용하기에 말일세”. Matteo Ricci, *Opere Storiche*, Vol. 2, p. 156; Jonathan Spence(1988), *The Memory place of Matteo Ricci*, London, p. 139에서 재인용.

28) “내가 듣기로는 중국문자는 육서(六書)에서 시작된다. 옛날의 육서는 상형을 시작으로 그 다음은 지사, 다음은 회의, 다음은 해성, 다음은 가차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전주이다. (상형 이하의 것들은) 모두 상형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그 이후에 사물의 이치(事物之理)를 갖추어 놓은 것이다.” 『서국기법』, 입상편.

29) “정상(正象)과 차상(借象)과 작상(作象)에 대해서 내가 법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눈(目), 달(月), 별자리, 산천, 언덕, 꽃과 과일, 초목, 금수, 곤충, 궁실, 기물, 의복, 음식 등을 (뜻하는) 글자들은 모두 실제로 형체를 가진 물건과 연관되어, 그 사물의 형상에 의거해 그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이것들은 근본적인 형상(本象)에 속하며 상형(象形)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와는 달리) “본(本)”, “말(末)”과 같은 두 글자는 모두 큰 나무 한 그루가 바로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뿌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바로 “본(本)”자의 형상이 되고, 그 끝을 잡고 서 있으면 “말(末)”자의 형상이 되니, 이것은 작상(作象)에 포함되며 지사(指事)라고 한 것과 같다. “명(明)”자는 해와 달이 모두 빛나는 것이고, “중(衆)”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며, “문(聞)”자는 큰 귀가 문 안에 바로 걸려 있는 것이며, “견(見)”자는 눈 하나가 이마 위에 세로로 서서 사방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이며, “배(拜)”자

기억 이미지화 방법		사 례	육서와의 관련성
正象/ 本象	사물의 형상에 의거해 기억	日, 月, 星斗, 山川, 花果, 草木, 禽獸, 昆蟲, 器用, 衣服, 飲食 등을 뜻하는 글자들	상형
借象	형상을 빌려서 기억	“구(苟)” : 개 (狗) “묘(描)” : 고양이(貓) “안(晏)” : 메추라기(鸚) “순(醇)” : 메추라기(鸚)	가차/해성
作象	형상을 만들어 기억	“본(本)” : 큰 나무 한 그루가 바로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뿌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 “말(末)” : 나무 끝을 잡고 서 있는 것	지사
		“명(明)” : 해와 달이 모두 빛나는 것. “중(衆)” :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문(聞)” : 큰 귀가 문 안에 바로 걸려 있는 것 “견(見)” : 이마 위에 눈이 세로로 서서 사방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 “배(拜)” : 양손을 가지런히 땅에 대고 인사하여 예를 표하는 것	회의
		“리(吏)” : 윷도리를 입은 사람이 문 서를 품은(一巾衫人懷挾文卷) 것 “병(兵)” : 갑옷을 입은 사람이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一甲胄人起舞軍械) 것	전주

는 양손을 가지런히 땅에 대고 인사하여 예를 표하는 것이니, (이 글자들은 모두) 또한 작상(作象)에 속하며 회의(會意)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구(苟)자는 개(狗)자와, “묘(描)자는 고양이 묘(貓)자와, “안(晏)자는 메추라기 안(鸚)자와, “순(醇)자는 메추라기 순(鸚)자와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를 취하여 실상(實象)을 기억하는 것은 차상(借象)에 속하며 가차(假借)와 해성(諧聲)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리(吏)자는 윷도리를 입은 사람이 문서를 품은 것이고, “병(兵)자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태(事)를 응용하여 뜻을 모은 것이므로, 뜻에 의거해 글자를 만들었기에 육서(六書) 가운데 소위 전주(轉注)와 같은 것일 뿐이다. 『서국기법』, 입상편.

리치에 따르면 상형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실제로 형체를 가진 물건(實有形體之物)과 연관”되어 있기에 “그 사물의 형상(物之象)에 의거” 하면 손쉽게 기억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리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억 이미지를 “正像” 또는 “本像”이라 부른다. 차상, 곧 ‘형상을 빌어오는’ 방법을 리치는 육서의 가차나 해성에 해당되는 글자에 적용한다. 그것은 동음이어로부터 이미지를 빌려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苟)”의 기억 이미지는 그와 동음이어인 ‘개(狗)’가, “묘(描)”의 기억 이미지는 ‘고양이(貓)’가 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가를 지닌 단어를 기억 대상의 이미지화에 사용하는 것은 서양 기억술의 기본 원리 중 하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방법을 육서의 가차 원리와 관련시켜 한자의 기억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³⁰⁾

리치의 방법 중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作象’이라 부른 것이다. 여기서 기억 대상인 글자는 임의의 구성 요소들로 분해되어, 각각 이미지들로 전환된 후 다시 일정한 의미론적 맥락을 통해 서로 결합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 또는 장면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본(本)”과 “말(末)”을 각각 나무 “木”과 가로획 “一”의 두 구성 요소로 나눈 후, “본(本)”을 “나무 뿌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末)”을 “나무 끝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명(明)”자는 “해와 달이 모두 빛나는(日月並耀)” 모습으로, “중(衆)”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문(聞)”자는 “큰 귀가 문 안에 바로 걸려 있는” 모습으로, “견(見)”자를 “눈 하나가 이마 위에 세로로 서서 사방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미지화하는 데에도 모두 동일한 원

30) 리치가 한자의 육서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사례로 든 글자들이 해당 육서의 범주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리치가 서양 기억술을 어떻게 한자에 적용하였는지를 살피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다. 여기서는 기억술의 다양한 이미지화의 방법을 리치가 육서설과 관련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한다.

리가 적용되었다.

대상을 임의의 단위로 분해하여 그 의미를 유추하려는 방법은 서구 정신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분석 Analysis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원리는 수사학에서는 “divisio” 또는 “partitio”라는 개념을 통해 이미 고대부터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원전 400년 경 소피스트 Hippias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텍스트 *Dialexeis*는 낯선 단어나 이름 등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를 익히 알 수 있는 의미론적 요소의 결합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yrilampes”라는 이름의 의미를 “Pyr : 불”과 “lampein : 빛나다”라는 단위로 나누어 해석하고 그에 의거해 기억한다.³¹⁾ *Kratylos*에서 플라톤 역시 이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어들은 엄격하게 복합체로 다루어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명시화하기 위해서 그 구성요소들로 분석된다 … 이러한 방식으로 Dionysos = didous oionon ‘와인을 주는 자’(406 c)로, Pelops = pelas + opis ‘짧은 안목’(395 c)으로, Agamemnon = agastos epimone ‘참아내는 데 있어서 놀랄만한’(395 b)으로, phronesis = phoras noesis ‘가는 것에 대한 감각’(411 d) 등”으로 해석된다.³²⁾ 마테오 리치의 창의성은, 대상을 익숙한 단위로까지 분해한 후 그들 사이에 의미론적 연관을 확인 또는 가정하여 전체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이 분석의 방법³³⁾을 한자에, 정확히 말하자면 한자를 기억 이미지로 만드는데 적용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분석-재결합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리치는 거의 모든 한자를 이미지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를 “여러 형상을 합하여 하나의 형상을

31) Mary Carruthers(2008), *The Book of Memory. A Study of Memory in Medieval Culture*, p. 32.

32) Gerad Genette(2001), *Mimologikien. Reise nach Kratylien*, Frankfurt am Main, pp. 23-24.

33) 이해되기 힘든 문제나 대상을 이해 가능한 구성요소들로 나누는 이 분석 Analysis 방법은 근대 이후까지도 중요한 학문적 방법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2부)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B9), 나아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도 등장한다.

만드는(合數象而成一象者)” 방법³⁴⁾과 “뜻(意)을 합쳐 형상을 만드는 방법”(參象以意而成象者)³⁵⁾, 나아가 “형태와 뜻(意)을 가지고 본체에 더하고 덜어내어 형상을 만드는 방법(以形與意損益本體而成象者)³⁶⁾”으로 세분하는데, 이들은 한자를 임의의 구성단위로 분해한 후, 임의적으로 그들 사이에 일정한 의미론적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34) “人과 犬으로 伏을 만들고, 人과 牛로 件을 만들고, 魚과 羊으로 鮮을 만들고, 魚과 禾로 穌(소)를 만들고, 金과 帛으로 鍬(금)을 만들고, 木과 帛으로 棉(면)을 만들고, 刀과 圭로 刳(구: 찌르다)를 만들고, 刀과 匕로 則(칙)을 만들고, 耳와舌로 聒(갈: 떠들썩하다)을 만들고, 矢과 豆으로 短을 만들고, 瓜과 角으로 觚(고: 술잔)를 만들고, 犬과 馬로 馱(태)를 만들고, 口과 耳과 糸로 緝(집: 길쌈하다)을 만들고, 竹과 門과 日로 簡(간)을 만든다”

35) “休(휴)를 기억하면서 사람이 나무에 기댄 것으로 하고, 楸(무: 무성하다)자는 창이 숲 속에 서있는 것으로, 輦(런: 수레)자는 두 사람이 수레를 끄는 것으로, 翫(충/용: 어리석다)자는 절구에 마음을 찡는 것으로, 囊(노: 낭창거리다)자는 옷을 덮고 있는 준마로, 輶(과: 기름통)자는 수레에 과실을 실은 것으로, 壟(농: 언덕)자는 언덕을 구불거리리는 용으로, 翔(상: 돌며 날다)자는 양에 날개가 생기는 것으로, 巢(효: 올빼미)자는 새가 나무에 깃드는 것으로, 蠱(고: 독)자는 벌레가 그릇에 있는 것으로, 雷(뢰: 우레)자는 밭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噐(기: 그릇)자는 개가 네 입을 벌리는 것으로, 妒(투: 질투하다)자는 여자가 문 옆에 있는 것으로, 窟(찬: 숨다)자는 쥐가 구멍을 엿보는 것으로, 籥(추: 거칠다)자는 사슴이 둘로 나뉘는 것으로, 齧(갹: 씹다)자는 새가 나뉘는 것으로, 濕(약: 젖다)자는 집이 물가에 있는 것으로, 齧(계: 비오리)자는 새가 시냇물을 마시는 것으로, 鳴(명)자는 새가 부리를 내미는 것으로, 告(고)자는 소가 입을 벌리는 것으로, 解(해)자는 소뿔에 같이 걸린 것으로, 鬪(투: 말)자는 말이 머리를 내밀다)자는 말이 문 가운데 서있는 것으로, 矮(왜: 작다)자는 여인이 벼를 이고 활을 잡은 것으로, 萌(맹: 새싹)자는 해와 달 위에 풀이 덮여 함께 빛나는 것으로”

36) “예를 들어 每(매)자는 어미의 머리에 모자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灾(재)자는 불이 지붕 위로 번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午(오)자는 소가 머리가 잘린 것으로, 干(간)자는 양이 그 뿔이 잘린 것으로, 瞿(민)자는 거북이 머리를 움츠린 것으로, 方(방)자는 방에서 문을 거둔 것으로, 什(십)자는 노인이 손에 지팡이를 든 것으로, 亞(아)자는 악인에게서 심장을 털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론 : 서구인들의 한자 이해에 있어 분석(Analysis)의 방법

마테오 리치가 한자를 기억 이미지로 만드는 데 적용했던 이 분석 방법은 한자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오해)의 역사에 자주 등장한다. 그 자체로 의미를 담지하는 단위 글자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는 한자 문자체계의 특성,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적 변동으로 인해 애초 구성 원리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조건 하에서 이 방법은 한자를 둘러싼 상상적 이해의 발판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한자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나아간 몇 가지 사례만을 소개한다.

마테오 리치 사망 후, 중국 공중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 조앙생 부베(Joachim Bouvet, 1656~1730)는 “중국 문명이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분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색은주의³⁷⁾적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1701년 11월 4일 철학자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중국인들이 사실상 기독교의 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天”이라는 글자를 분석한다. 이를 “一”, 곧 unus와 “大” magnus로 분해한 그는 중국인에게 하늘은 “하나이자 거대한 unum magnum 것”으로서의 유일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天”의 중국어 발음 “tien”이 그리스이스어로 신을 지칭하는 “theos”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해석에 더 큰 확신을 갖게 하였다. 부베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Dominus”를 의미한다고 보았던 글자 “主”에 대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 글자를 “王”과 “丿”으로 분해하고 나서, 이 단순한 점 “丿”이 히브리어 철자 ך (yodh)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부베에 따르면 ך (yodh) ן (heh) ן (vav) ן (heh) 4개의 철자를 통해 신의 이름을 지칭

37) 예수회 선교사들의 색은주의에 대해서는 이연승, 『예수회 색은주의 선교사들의 유교이해』, 종교와 문화 17호.

하는 Tetragrammaton(YHWH)에서도 이 “ㄷ(yodh)”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모든 존재 중 가장 완전한 초월적인 존재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³⁸⁾이다. 따라서 왕과 이 철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한자 “主”는 다름아닌 세계의 왕이자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글자라는 것이다. 나아가 부베는 중국 역대 왕의 이름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계보에 통합시키는데, 예를 들어 요 임금의 “堯”를 십자가 “十” 세 개와 와 근원 “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한 후,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상징이며, 다시 “二”와 “人”으로 분해될 수 있는 두 번째 글자 “元”은 “인간으로서는 두 번째 신적 인물”의 상징이라고 읽는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종교적 관점에서 한자 해석에 적용하는 사례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1979년 Luther Church Missouri Synode(LCMS)의 출판부 Concordia Publishing House에서 출간된 책 *The Discovery of Genesis. How the Truth of Genesis were found hidden in the Chinese Language* 가 대표적이다. 저자들 - 미국인 선교사 Ethel R. Nelson, 중국계 목사 C. H. Kang - 은 놀랄만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한자가 창세기의 사건과 기독교 신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음을 분석의 방법을 통해 ‘증명’한다. 造(지을 조)는 하나님이 흙(土)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의 입(口)에 생기(丿)를 불어넣음으로써 말하고(告) 걸을 수 있게(夊)했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간직하는 글자이며, 田(밭 전)은 네 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口), 에덴동산을 상징하는 글자다. 하나님이 첫번째(一) 사람(人)인 아담을 정원(口)에 가두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西’는 에덴동산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에덴동산이 중국에서 보면 서쪽에 있다는 걸 함축한다. 園(동산 원)은 흙(土)으로 만들어진 두 사람(人人)이 있던 울타리(口)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

38) Bouvet an Leibniz(1701), Gottfried Wilhelm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1689~1714). Hg. von Rita Widmaier, 2006, Munechen, p. 340.

서 역시 에덴동산을 지칭하는 글자이고, 要(요긴할 요)는 동산(口)에 있던 최초의(一) 사람(人)인 아담(西)에게 배필인 여자(女)가 필요했었다는 사정을 드러내는 글자이며, 女(계집 여)는 신이 첫째(一) 사람(人)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만든 사람이라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글자다. 근원 또는 시작을 의미하는 元(시작 원)은 인류의 시초가 아담과 하와라는 두(二) 사람(人)에서 시작되었다는 창세기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있으며, 禁(금할 금) 자는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示)께서 에덴동산의 두 나무(木)를 따먹지 말라 명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魔”는 에덴동산(田)에서 사람(人)에게 은밀히 접근한 귀신 鬼(귀신 귀)이 생명 나무와 선악과 나무(木) 사이에 숨어(广)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글자이며, 始(비로서 시)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여자(女)가 금지된 과실을 남모르게 먹음으로(口) 죄와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자다.

문자학의 관점에서 이런 해석의 근거 없음을 해명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서국기법』에서 마테오 리치가 한자의 기억 이미지를 위해 도입했던 분석 방법이 이처럼 그 이후 한자에 대한 서구 담론 내에서 중국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전유하는 데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된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3.3. 기억 이미지: 구절 또는 문장의 경우

리치가 『서국기법』에서 제시하는 한자 기억법은 이미 한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개의 이미지를 통해 “구(苟)”자를 떠올리고, 고양이의 이미지로 “묘(描)”자를, 메추라기의 이미지를 통해 “안(晏)”자를 떠올리려는 사람은 이미 개, 고양이, 메추라기를 지칭하는 한자에 대한 지식은 물론, “狗”와 “苟”, “描”와 “貓”, “晏”과 “鸚”이

동음이의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나무의 뿌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의 이미지로부터 “木”을 떠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木”의 의미와 글자를 알고 있어야 하며, “소가 입(口)을 벌리는 모습”으로부터 “告”자를 떠올리거나 “머리가 잘린 소”의 이미지로부터 “午(오)”자를 떠올리려는 사람은 “牛”의 형태는 물론 그 글자의 의미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억법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나아가 상형으로 분류된 개별 한자들이 어떤 “형체를 가진 물건”(實有形體之物)과 연관되는지를, 가차/해성에 해당되는 글자들의 발음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회의자를 이루는 각 글자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서국기법』의 목표가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자 그 자체를 익히고 배우는데 서양 기억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실제 내용과 충돌한다. 리치가 내놓는 방법을 활용해 한자를 익히려면 이미 상당한 한자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역설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국기법』의 목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앞에서 언급했듯, 서구 기억술이 초보적 지식을 암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지식을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었음³⁹⁾을 떠올린다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기억술은 그를 활용하려는 사람의 상당한 사전 지식을 전제한다. 『서국기법』은 중국인들에게 한자 자체를 익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미 한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중국 지식인들로 하여금 한자로 이루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려던 책이다. 이 책의 이러한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정식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전까지 주로 개별 한자의 이미지화의 방법이 다루어졌다면, 여기서부터는 한자로 이루어진 구절들을 기억하

39) Mary Carruthers(2002), *The Medieval Craft of Memory. Meditation, Rhetoric, and the Making of images 400-1200*, p. 9.

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리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한다. 하나는 “글자를 따라 형상을 세우는”(逐字立象)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 뜻을 모아 파악하는”(融會意旨) 방법이다.⁴⁰⁾ 이 두 방법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서구 기억술의 “*memoria verborum*”과 “*memoria rerum*”의 구분에 상응한다. 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다시 말해 그를 이루는 글자들 모두와 함께 축자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memoria verborum*의 사례로 리치는 논어의 구절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를 들고 있다. 이 방법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개별 글자들을 앞에서 배웠던 방법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이미지로 만든 후 그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동이 서서 서책을 보고 있는 것으로 “學”자를 생각하고, 무사가 삼지창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而”자를 그린다. 또한 해가 절 앞을 비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時”자를 형상화한다. 혹은 성(姓)이 “時”이거나, 이름이 “時”인 사람으로 (기억한다). 해에 두 날개가 생겨서 어떤 한 사람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習”자를 그린다. 혹은 성(姓)이 “習”이거나 이름이 “習”인 사람으로 (기억한다). 한 사람이 일척 가량의 나무를 잡고 그 머리를 자른 것으로 “不”자를 그린다. 한 사람이 어깨에 창을 가로로 걸고 허리에 두 개의 추를 매단 것으로 “丈”자를 그린다. “丈”은 전문(篆文)으로, 곧 “亦”자이다. 부엌이 바위 성을 쌓은 것으로 “說”자를 취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얼굴을 위로 하고 웃는 것으로 또한 “說”자를 그린다. 오랑캐 웃을 입은 한 오랑캐가 앉아 있는 것으로 “乎”자를 가차(假借)한다. 이상의 아홉 글자는 글자를 따라 형상을 세운 것인데, 그 형상을 순서에 따라서 아홉 군데에 두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글자를 하나의 장소에 맡기는 예가 된다.”⁴¹⁾

40) 『서국기법』, 제5편 정식편.

41) 『서국기법』, 제5편 정식편.

고전에 등장하는 구절이나 문장을 글자 그대로 기억해 활용할 수 있다면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학문체계 내에서도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지적했듯 말의 기억은 텍스트의 전체적 의미나 사안의 정황, 논쟁에서의 논거들을 기억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물의 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우며 그러한 이유로 활용도도 낮았다. 리치 역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처음 기억법을 배울 때에는 자구를 따라 형상을 정하는(逐字句定象)” 말의 기억을 익혀야 함을 강조⁴²⁾하기는 하지만, 기억술의 본래적 가치는 “하나의 상(一象) 혹은 두 개의 상(二象)으로 한 구절 혹은 두 절(一句二句)을 해당시켜 한 사태의 큰 뜻(一事大旨)에 이르게”하는 사물의 기억을 활용함에 있다고 본다. 문장을 이루는 글자들을 축자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는 ‘사태의 큰 뜻’을 포착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한두 글자를 잊어버려도 대강의 의미는 남아 있어서 문장을 따라가며 찾을 수 있으니 글자마다 기억해 두는 것에 비하여 빠르고 간편”⁴³⁾하기 때문이다. 리치는 논어, 대학, 역경, 상서, 사기 등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많은 구절들을 사례로 들면서 여러 글자로 이루어진 구절을 하나의 이미지로 융합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예를 들어 『중용』에 등장하는 “尊德性”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된다.

“尊德性”의 세 글자를 기억하려면, 먼저 “尊德性”의 두 번째 글자를 살
아있는 형상(活象)⁴⁴⁾으로 취하여, 덕이 있거나 덕으로 이름난 사람을 가운

42) “처음 기억법을 배울 때에는 자구를 따라서 형상을 정해야 하며 단계를 뛰어넘어 급하게 끌어 붙여 모아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래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서 형상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린 후에야 임의로 사용해도 걸리는 것이 없게 된다.”

43) 『서국기법』, 제5편 정식편.

44) 여기 등장하는 “살아있는 형상(活象)”이란 *Imagines agentes*를 말한다. 리치가 “정식편”에서 기억 이미지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10가지는 대부분 *Imagines agentes*의 조건들이다. 1.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어야 한다. 죽은 사물의 경우 사람을 넣어 그 사물과 관련시킨다. 2.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데에 있게 하고 왼손에는 술 한 동이를 들고 오른손에는 피를 두른 산 심장을 들게 하여 (그 모양을) 합하여 ‘尊德性’의 세 글자를 완성한다.⁴⁵⁾

『헤렌니우스에게 보내는 수사학』의 법정 논변을 위한 기억장면과도 유사한 이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면 “尊”으로부터 “술동이”, “性”으로부터 “피를 두른 산 심장”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을 만큼 개별글자의 이미지화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절들의 축자적 암기가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는 ‘사태의 큰 뜻’을 떠올려 논쟁이나 토론, 대화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기억 이미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단초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보다 길고, 다수의 구로 이루어진 문장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 “有美玉於斯，韞櫝而藏諸，求善價而沽諸(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나무 상자에만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좋은 값으로 팔기를 구하겠습니까)”을 기억하기 위해 리치는 “한 사람이 성인의 용모로 유가의 복식을 하고 흰 옥을 한 쪽에서 들고서 금등상자에 넣으려고 하고, 그 옆에 외국 상인이 서서 백금 십정을 받들고서 웃으며 팔기를 구하는” 장면을 제시한다. 여기서 “유가 복식을 한 성인”은 자공을, “흰 옥”, “금등상자” 등은 그 일화를 상기시켜 주는 개별 이미지들이다. 사기에서 백이숙제가 말을 당기며 간언하는 대목(夷齊叩馬而諫)은 “어떤 방백이 갑옷을 입고 말에 뛰어오르며 깃발과 도끼를 잡고 있는데 두 명의 시골 늙은이가 말 재갈을 당기며 슬픈 얼굴로 올려다보는” 장면으로, 공자가 원앙을 책망하여 종아리를

3. 선명하고 다채로운 빛깔로 눈길을 끌 수 있어야 한다. 4. 이미지의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5.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괴이하고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 7.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 8. 등장하는 사람은 직업에 어울리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9. 장소와 어울리는 이미지여야 한다. 10. 유사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 이미지여야 한다.

45) 『서국기법』, 제5편 정식편.

때리는 논어의 대목(孔子責原壤而叩其脛)은 “한 사람은 걸터앉아서 흘겨보고 있고 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치려 하는” 장면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된 장면들은 토론이나 강연 등에서 이 구절들을 떠올려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나가는 말

리치가 중국에 온 지 10여 년 만에 책을 집필할 수 있을 만큼 한자를 익히고, 중국 지식인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고전 사상과 경전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데에는 분명 『서국기법』에서 소개되는 기억술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데에는 그 자신에 의해 증명된, 학문과 지식 활동의 방법론으로서 서양 기억술의 효용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서국기법』은 16세기 한 서양인으로 하여금 중국의 지식과 사유의 세계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한 서양의 지식 방법론과 그를 통해 그가 전유해 낸 중국의 지식이 처음으로 맞부딪혔던 역사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 소개한 중국학자 미하엘 라크너(Michael Lackner) 교수가 『서국기법』을 “서구와 중국의 정신세계 사이에 가교를 놓으려던 … 최초의 시도”⁴⁶⁾라 평가한 데에도 이러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리치의 이 시도는 당대 중국인들에게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리치의 놀라운 기억능력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던 중국인들도 정작 이 책에 소개된 그의 기억법에 대해서는 부정적⁴⁷⁾이었다. 그의 다른 저작들이 동아시아에서

46) Michael Lackner(1986), *Ibid.*, p. 1.

47) 리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인들은 기억 체계에 대해서는 경탄하면서도

서구 문명, 특히 가톨릭의 전파와 유입에 끼친 거대한 영향력과 비교해 볼 때 『서국기법』의 실질적 영향력이란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많고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야 했던 리치에게는 한자를 임의의 기억 이미지로 바꾸어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모르나, 이미 익숙해 있는 한자를 임의의 이미지로 바꾸기를 요구하는 리치의 방법은 중국인들에게는 부가적인 수고를 요구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한 중국인은 리치의 기억술에 대해 “참으로 대단한 재능이지만 그것(기억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력이 없으면 안된다”⁴⁸⁾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주로 한자의 의미론적 맥락에만 의존하는 리치의 “상기법”(象記法)으로는 개별 한자나 문구의 음가와 음성적 유사성을 지닌 기억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아마도 이는 『서국기법』을 집필할 당시의 리치가 충분한 만큼의 한자의 음운적 지식을 갖지 못해, 한자를 의미론적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서국기법』의 실패는 연설과 논쟁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당대 서구 학문과 그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중국 지식전통의 차이에서, 기억술이 전제하고 있는 시각적, 인지적 학습 방법과 중국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서국기법』을 분석하는 일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겠다.

이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Jonathan Spence(1988), *The Memory Palast of Matteo Ricci*, London, p. 4.

48) 히라가와 스케히로(2002),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시아, 253쪽.

참고문헌

- 히라카와 스케히로(2002),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노영희 옮김, 동아시아.
- 이연승(2009), 「예수회 색은주의 선교사들의 유교이해」, 『종교와 문화』 17호, 33-66.
- 조대호(2012), 「기억과 상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억과 상기에 대하여’ 2장에 대한 분석」, 『철학연구』 96호, 2012, 5-38.
- Frances A. Yates(2001), *The Art of Memory*,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rad Genette(2001), *Mimologiken. Reise nach Kratylien*, Frankfurt am Main.
- Gerhard F. Strasser & Mara R. Walde(2004), ed. *Die Domäne des Emblems*, Wiesbaden.
- Harry Caplan(1954), tr. *Rhetorica Ad Herennium*, Harvard University Press.
- Helga Hajdu(1967), *Das Mnemotechnische Schrifttum des Mittelalters*, Amsterdam.
- Jonathan Spence(1988), *The Memory place of Matteo Ricci*, London.
- Marry Carruthers & Jan M. Ziolkowski(2002), *The Medieval Craft of Memory.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hiladelphia.
- Mary Carruthers(1998), *The Craft of Thought. Meditation, Rhetoric and the Making of Images, 400-12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The Book of Memory. A Study of Memory in Medieval Cultur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ael Lackner(1986), *Das Vergessene Gedächtnis. Die Jesuistische Mnemotechnische Abhandlung XIGUO JIFA*. Übersetzung und Kommentar. Stuttgart.
- Rita Widmaier(2006), *Gottfried Wilhelm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1689~1714)*, Hamburg.
- Robert Schwickerath S. J.(1903), *Jesuit Education. Its History and Principles Viewed in the Light of Modern Educational Problems*, Saint Louis, Missouri.
- U. Eco(1988), “An Ars Oblivionalis? Forget It!”, *PMLA* 1998 May, Vol. 103, 254-261.

Wolf Lepenies(1976), *Das Ende der Naturgeschichte. Wandel kultureller Selbstverständlichkeit in den Wissenschaften des 18. und 19. Jahrhundert*, München.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29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Chinese Character as Memory Image

- Matteo Ricci's *The Western Art of Memory*(西國記法) -

Kim, Nam See

Matteo Ricci's *The Western Art of Memory*(西國記法) is an attempt to apply the Western art of memory to Chinese characters and texts. In this book Ricci introduced the principles of the art of memory for the first time to China, as well as a variety of ways of remembering Chinese texts, based on his unique 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s. This paper aims mainly to survey the important points of this book that has been little studied until now. For this purpose, we outline at first the structure and principles of the Western art of memory and show how Ricci applied it to Chinese contexts. Unlike the other books written by Ricci, the influence of this book on Chinese people was almost negligible. But here we can observe the way in which a 16th century European intellectual understood and appropriated the Chinese knowledge system.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at arose as the different cultures of Europe and China came into contact.